

변천하는 사회와 도서관문화의 재조명

李斗榮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I. 創造의 搖籃

도서관은 사회의 창조물이다.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이 땅의 모든 물질자원이 만들어 졌고, 신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낼 때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정신세계가 창조되었고, 이때에 신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우주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신성함이 결국 인간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그렇고, 인간이 지배하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인공심장을 만들어 마치 자동차 부품처럼 갈아 끼운다던가, 이식수술이나 정형수술로 원래의 모습을 바꾸어 버린다던가...이렇듯 현대과학은 인간의 신비성을 여지없이 추락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 인간 자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은 신이 아닌 인간에 의해 창조된 것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깊은 사고활동에 의한 철학, 주장, 신념, 견해나 이론 등의 지식과 환희와 비애, 격동과 울분, 미적 희열과 찬미, 적막속의 고요 등 인간의 감정과 주관적 지식을 문자로 표현한 기록물이나, 작품으로 표현한 온갖 창작물들은 신이 아닌 인간에 의해 창조된 고귀한 창조물(artifacts)로서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아기의 머리속에는 무엇하나 기억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성장해 가면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수많은 artifact를 읽고, 듣고, 봄으로써 그것을 창조한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비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수많은 기록물이나 작품을 통해 기존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능력을 배우고, 인간의 경험을 터득하고, 무엇에 대해 느끼고 감동할 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할 수 있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터전과 능력이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 창조된 기록물과 작품을 우리는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존 정신세계는 도서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서관을 통해 지금까지의 인간의 정신세계를 알 수 있고, 다시금 새로운 정신세계를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사회는 도서관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도서관을 사회적 창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인간사회는 변천하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가 바뀌고 사회적 요구가 달라지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도서관이 사회적 창조물이라면 사회가 변천할 때 도서관도 함께 변환되어야 도서관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처럼 동반자의 관계에 있는 이 두가지, 즉 사회의 변천과 도서관의 변화 이 둘 사이에 관련되는 문제점들을 제가 발제형식으로 제시하고, 이어서 각 문제점을 심도있게 다룰 주제발표

자와 여기 모이신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는 뜻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II. 변화하는 사회

18세기 중엽부터 약 1세기에 걸쳐 영국에서 출현한 산업혁명은 기계의 발명이라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응용을 바탕으로 공장제 산업을 가능케하여 근대 자본주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농촌공동체-전자본주의사회는 공동체 내부의 자금자주체제가 해체되면서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변화는 인류역사에 있어서 未曾有의 것이었습니다. 즉 생산은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생활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층의 분해로 인한 인구의 도시 집중이나 생활환경의 파괴, 새로운 빈민층의 창출 등을 가져왔습니다.

산업혁명 이래 영국 및 유럽 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공업화가 급속히 진전되었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觸發된 일련의 기술혁신에 의해 이들 선진 공업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사회는 성숙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고도산업사회는 그 내부에서 여러가지 모순을 露示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자원의 有限化, 식량 위기나 환경의 파괴 등, 기술혁신의 엄청난 혜택이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반면 동시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모순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혁신의 혜택을 보다 증대시키고 동시에 산업사회에 내포된 모순을 止揚하기 위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 이른바 情報社會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 및 半導體 기술을 원동력으로 하는 이 사회는 資源을 대량으로 소비하여 財貨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대신하여 정보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이 物的 생산활동 이상으로 가치를 지니는 정보화사회임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니

엘 벨은 경제활동의 중심이 製造業으로 대표되는 財貨의 생산에서 서비스나 정보, 지식의 생산으로 이행되는 사회가 정보사회, 탈공업화사회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정보화사회로의 추세를 네이비트(John Naisbitt)는 거대한 새 물결(mega trends)로 규정짓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체계의 변화를 그의 저서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 역시 농업혁명을 제1의 물결로,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문명의 출현을 제2의 물결로 보고, 제3의 물결은 고도의 과학기술에 의지하는, 동시에 反產業主義의 성격을 띤 새로운 사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III. 정보화의 배경과 효과

정보화사회의 출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사회의 성숙과 고도화로 인해 발생된 내적인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그 일차적인 배경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산업분야가 계속 성숙함에 따라 그 소비시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새로운 시장개척이 절실한 현실문제로 대두되었고, 자원 및 에너지의 枯渴化에 따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對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국제경제사회의 극심한 경쟁으로 부터 살아남기 위해 경쟁상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제적 優位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인구의 도시 집중이나 公害 등 산업사회의 제반 모순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산업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고도의 정보화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정보관련 기술의 발전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정보화사회의 핵심산업이 되고 있는 컴퓨터산업과 통신산업은 다른 산업과 대조적으로 기술발전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창출 또한 기술에 의해 선도되는 등 이들 산업은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그 기술을 즉각 응용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왔던 것입니다. 통신과 컴퓨터가 결합됨으로서 반도체 시장이 개발되었고 역으로 반도체 기술의 발전이 또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상호 상승효과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 이것을 정보혁명이라 부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보화를 진전시킨 또다른 요인으로는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적, 사무적, 후생적인 제반정보가 폭증하고 있으며, 국민의 知的 수준의 상승으로 학술관련 정보에의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아니라 생활의 질적 향상도 정보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정보화의 추세는 산업면에 있어서 생산성의 향상, 자원절약, 에너지절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는 개개인의 생활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가치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분야에 있어서 정보화의 의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의 的確한 대응, 행정사무의 효율화, 고도화, 신속화 등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전산망, 교육, 연구전산망, 금융전산망 등의 國家基幹電算網의 구현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의료분야의 정보화, 건강관리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 CAI(Computer Aided Indstruction)를 포함한 교육의 정보화; 광역교통신호시스템이나 CVS(Computer Controlled Vehicle System) 등의 교통분야의 정보화; Home Automation의 실현; 국내·외 정보은행서비스; 부가가치 통신서비스(Value added network); 비디오텍스(videotex) 서비스; CATV; Home Banking 서비스 등 컴퓨터와 통신이 접속됨으로서 사회분야의 정보화 효과가 직접적으로 가정까지 파급되어 있고, 일정한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連帶感과 지역사회의 安定性을 提高시키는 일

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화는 이와 같이 경제의 성장이나 사회문제의 해결, 생활의 질적 향상과 함께 국민의 문화적 가치의식을 높이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IV. 도서관 문화의 개념

인류학내에서도 아직 문화의 개념에 대해 통일된 정의가 내려진 바 없고 문화를 어떤 측면 또는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화가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속성에 대해서는 모든 문화인류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1. 문화는 사회성원들에 의해 공유된다(culture is shared).
2. 문화는 학습된다(culture is learned).
3. 문화는 축적적이다(culture is cumulative).
4. 문화는 하나의 전체 또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culture is a whole or system).
5. 문화는 항상 변한다(culture is always changing).

이와같은 속성을 지닌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시기 총체론적인 입장과 관념론적인 입장, 이 두가지 기본적 입장에서 접근되고 있습니다.

總體論者(totalists)들은 행위양식 및 사고양식을 포함하여 適應機制(adaptive mechanism)로서의 생활양식 일체를 문화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한 인간집단의 생활양식(way of life)이라 정의하고 있고,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는 한 사회 또는 사회집단을 특징짓는 고유의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인 특성들의 총체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觀念論者(idealists)들은 문화란 사람의 행위나 구체적인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모델이요, 그 구체적인 현상으로부터 추출된 하나의 抽象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관찰된 행동 그 자체(patterns of behavior)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위한 또는 그런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의 체계

(patterns for behavior)가 곧 문화라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화에 대한 정의를 도서관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도서관 직원, 도서관 이용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정보자료의 관리와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시설, 자료, 직원,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과 관련되는 모든 행위양식과 사고양식을 포함한 적응기계로서의 도서관 생활양식 일체를 도서관 문화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 시설의 有無, 필요한 수 만큼의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지; 도서관의 시설과 관련하여 특정 도서관이 제공해야 할 정보서비스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所藏 藏書와 관련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장서의 質的, 量的문제; 도서관 조직의 합리적 구성; 도서관 예산의 適切性; 도서관 직원의 專門性 내지는 전문직으로서의 사명의식과 봉사정신;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서비스의 다양성, 타도서관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의 積極性 여부 등이 도서관 문화의 社會指標論的 측면에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도서관 문화의 지표론적 정의의 필요성은 도서관의 가치와 도서관 목표에 비추어 지금의 도서관이 어디에 서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判別할 수 있는 통계계열 및 그 이외의 모든 형태의 證據로 도서관문화를 발전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나아가서는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도서관 이용자들이 보는 도서관의 이미지, 도서관 司書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도서관자료 이용의 생활화, 독서의 생활화 등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사회집단 고유의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성들의 총체가 도서관문화의 정의에 역시 포함됩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는 항상 변한다”라는 屬性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서관문화 역시 새로운 사회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변하는 사회 변동에 대해 銳敏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館種別로

설정하고 있는 既存의 도서관 설치기준, 시설기준, 장서기준, 전문직 자격요건,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내용, 직제기준 등 단위 도서관과 관련한 지표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도서관 정책, 사회에 대한 도서관 이미지와 역할에 이르기까지 사회변화에 따른 도서관문화의 再照明이 꼭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V. 전자시대에 있어서의 도서관

도서관 기능 가운데 자료의 선정과 수서업무; 입수한 자료에 대한 분류, 편목, 색인, 입력, 축적 등의 조직과 통정을 위한 업무; 도서관 정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도서관 정보자료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용프로그램 등을 도서관의 대표적인 기능이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도서관을 전자도서관의 시각에서 본다면 전통적인 업무처리의 양상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수서업무와 관련하여 볼때 전통적인 인쇄자료나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에 대한 주문 및 입수업무는 전자출판물이나 전자자료에 대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화일안에 수록된 정보자료는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들 전자자료에 대한 선택업무는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 “무엇을 입수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전통적인 사고에서, “무엇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思考상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즉 온라인 데이터뱅크의 선정에서 부터 각 주제별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검색기법의 차이, 경제성의 문제 등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테이프로 구독할 것인가 아니면 CD ROM으로 구입할 것인가 등이 선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수자료의 정리부문에 있어서도 OCLC와 같은 공동편목 시스템이 실현될 경우 온라인 접근이 가능한 전자자료들은 어느 중앙기관에 의해 분류편목과 색인작업, 초록작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도서관에서의 二重的 작업이 필요없게 될 것입니다. 최신 입수자료에 대한 온라인 공동편목은 우리나라의

경우 좀더 기다려 봐야 할 일이겠으나, 소장자료에 대한 遡及입력 작업은 LC MARC의 Bibliofile, OCLC의 CAT CD450, UTLAS의 CD CATTs 등의 CD ROM을 downloading하여 이미 많은 도서관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끼리의 협력을 통해 도서종합목록, 정간물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도서관 상호대차를 실현하는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착자료의 입력과 소장자료에 대한 소급입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미 온라인 목록과 검색을 병행하고 있는 도서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서비스에 있어서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서지정보의 검색, 사실정보의 검색, 전문(full text) 검색을 비롯하여 CD ROM화 된 주제별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등 과거 인쇄매체에 의존했던 제한된 정보검색의 폭이 혁신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르러 분류, 편목작업 부문과 참고봉사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대체시스템(Expert System)이 개발되고 있는 단계로 전문사서의 융통성있는 활동을 가능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트웍부문에 있어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전국도서관 정보전산망, 문교부의 교육전산망, 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전산망과의 연계는 물론, 해외 학술전산망(예: BITNET, CSNET 등)과 SDN(System development Network)과 같은 국내 학술전산망과의 연계가 곧 실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서관이 다루고 있는 기록매체 부문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인쇄매체에서 전자매체로 서서히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전자형태의 자료가 증가하고 있고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라는 물론 정보의 원격 송신과 수신에 용이해지고 있는 전자시대에 있어서의 도서관은 지금의 도서관의 양상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Lancaster의 예상에 따르면, 첫째, 현재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서비스의 형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겠으나 새로운 전자매체자료의 출현과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도서관의 기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둘째, 네트웍 활동의 확대는 도서관 정보서비스 효율을 높일 것이고 비용 대 효과면에서의 향상을 가져 올 것이다. 또한 네트웍은 개별도서관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도서관자료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인쇄매체자료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될 것이며 차츰 전자형태의 자료로 전환될 것이다.

넷째, 현대 과학기술은 정보서비스를 정보요구자의 가정이나 사무실로 직접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

다섯째, 지방 도서관의 중요성이 감소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요구자 개인이 통신망을 통해 전국 어느곳에서나 직접적인 정보자원의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며, 또한 이용자 자신이 필요한 정보화일을 스스로 구축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정보요구자 자신이 전자우편과 같은 온라인 정보유통사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공식 커뮤니케이션과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의 구분이 모호해 질 것이다.

일곱째, 새로운 형태의 정보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같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서의 변화를 가능케하고 전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전문성이 크게 작용되어야 합니다.

VI. 사서의 전문성

이 시대에 있어서의 도서관은 사서의 전문성이 특별히 강조되는 때입니다.

W. Moore가 제시하고 있는 전문직의 자격요건을 보면 첫째로 고도의 公認된 교육훈련을 통하여 획득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봉사이념 및 윤리성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제일로 중시하는 마음의 소지자, 셋째로 개개 전문가 및 전문단체의 일원으로서 고도의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Moore에 의한 전문직 자격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전문지식이라 봅니다. 다시 말해서 문

현정보학 정규교육을 통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으로는 6개 전문대학, 30개 대학교, 12개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4개 대학이 문헌정보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도서관학 전문교육은 대학의 학부가 아닌 대학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학자격을 보더라도 광범위한 교양을 갖춘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하고 있으며 전문교육은 1년으로 하여 기본적인 전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미국의 도서관 전문직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학부 전공주제를 배경으로 하는 주제전문가를 양성시키고 또한 도서관 기능이나 관종에 따른 전문사서의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서자격 요건을 보면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사서강습을 수료한 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에서 도서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서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일본의 교육기관의 현황을 보면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과 短期大의 수는 8개교이고 박사과정은 3개대학, 석사과정은 5개 大學에 설치되어 전문과정으로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도서관학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 단기대는 전국적으로 200개교가 넘으나 이들 대학의 대부분은 主專攻이 아닌 사서, 사서敎諭과정으로 본래의 교육목적과 관계없이 타학과 학부학생이 수강할 수 있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도서관업무 수행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한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부전공을 살릴 수 있는 대학원 수준의 교육으로 상향시키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도서관학,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30개 대학으로 수요 공급의 원칙으로 보아 그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도서관학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은 8개교 뿐이고, 미국의 경우

석사수준의 도서관학 대학원의 수는 300여개로 이 가운데서 미국도서관협회의 인가(accreditation)를 받은 학교는 70여교에 불과합니다. ALA의 도서관학대학원의 인가심사는 학교의 목적, 교과과정, 전임교수, 학생, 운영 및 재정,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준높은 전문직 사서를 양성하기에 합당한 전공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전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수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교수의 학위, 연구업적, 교수방법들을 심사합니다. 학생들에 관해서는 입학자격, 성적, 졸업자들의 졸업논문이나 학위논문의 질을 평가하며, 시설과 관련하여 전공교육에 필요한 藏書,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실습장등에 대해 평가합니다.

이와같은 엄격한 심사에 인가된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은 실제로 사회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미국의 전문사서직 모집광고의 응모자격을 보면 인가된 학교를 졸업한 자로 제한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비사서들의 자질을 근원적으로 향상시키는 한 방법으로 도서관학과에 대한 인가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학과 졸업생에게 졸업과 동시에 사서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이들이 도서관에 진출하여 실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졸업생들이 과연 그럴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현장에 임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전자시대의 사서는 도서관이 다루어야 할 각종 기록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쇄자료는 물론 다양한 시청각자료, 마이크로자료, 전자자료, 실물자료에 이르기까지 기록내용의 특성과 이용의 효용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의 실제적인 이용에 필요한 장비와 기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컴퓨터 정보처리 기법과 통신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기술적인 측면은 물론 자동분류, 자동색인, 온라인 정보검색기법,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신기술, 시스템이론

등 이론적인 지식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교육은 예비사서를 배출해 내는 도서관학과에서 그 기초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현재 대학이 교과과정은 물론 실습기자재, 전공교수진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 우리가 졸업생에게 사서자격증을 주고 자신있게 이들을 실무에 내보낼 수 있겠는지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W. Moore는 전문직의 자격요건으로 교육훈련을 통한 지식의 고도성을 강조한데 이어 전문단체의 일원으로서의 고도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직단체는 전문직의 권익을 옹호하고 전문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및 친목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전문직의 전문성을涵養시키는 학술단체의 기능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문직은 전문직 단체에 가입하여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있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단체의 학술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급격히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도서관 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외면한채 시대적 문맹자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미국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은 매년 자신들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가기준으로는 첫째, 담당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 둘째, 정규교육이나 연수등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 高揚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주제전문사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타전공 석사학위 취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셋째, 타부서와 동료와의 원만한 인간관계 및 협력 여부 넷째, 전문단체 가입여부는 물론 전문단체의 임원으로서의 활동, 주제발표 등 참여의 적극성 다섯째, 한 해 동안의 연구업적 등을 매년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서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증거로 학위, 학술발표회의 참여, 주제 발표, 연구실적과 함께 전문직단체에서의 적극적인 학술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VII. 도서관의 사회적 인정

Kenneth R. Andrews는 연구를 통한 지식,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 전문직자체를 발전시키는 일, 실행기준을 설정하는 자율적 통제 등 이들 4가지 기준을 가짐으로서 전문직은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인식은 과거나 지금에 있어서나 그 사회적 인식도가 거의 全無한 불행한 현실속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도서관문화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무관한 관심밖의 영역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도서관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사회란 온 국민이 도서관자료의 이용과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을 통한 의사결정, 문제해결,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있어서 정보나 데이터의 이용과 활용이 절대필수적인 행위로서 생활화되어 있는 사회가 될 때 우리는 도서관문화를 논할 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어온 가난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게 만들었으며, 임시위주의 교육제도는 전인교육이나 정서적 교육을 외면한 채 참고서 지상주의의 기형아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한 국가의 장래를 질명질 二世에 대한 도서관 이용교육의 후진성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의 문제점 뿐만아니라 국가의 도서관정책 不在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한 도서관의 육성발전은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아래 단계적으로 목표를 이행해 나가는 국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서관법은 1963년에 제정된 이후 1987년이 되기까지 20여년 동안 冬眠의 긴 암흑속에서 도서관은 放置되어 왔고 이제 그 落後性을 면할 수 없는 현실에 와 있는 것입니다. 1987년의 도서관법 개정도 정부가 도서관법 개정의 필요성을 切感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도서관계의 뜻있는 분들의 피나는 투쟁의 결과로 의원 입법의 과정을 통해 개정된 것입니다. 이와같이 20

여년만의刻苦 끝에 통과된 도서관법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법이 개정된지 4년이 되어도 정부는 아직까지 도서관행정을 전담하는 課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개정법의 후속 조치로서 교육법, 공무원 임용령, 조세감면 규제법 등 관계 법령들을 개정해야 하는 일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도서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도서관발전위원회 소집에 소요되는 예산때문에 전전공공하는 모습을 볼 때 또다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망속에서 도서관계가 문화부의 탄생과 함께 우리나라 도서관의 장래를 문화부에 기대해 보겠다는 움직임은 남득이 가고도 남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어느 부서가 도서관행정을 담당하게 되는 또한번 정부에 바라고 싶은 것은 정부가 도서관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투철한 이해와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화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곧 국가발전의 원천적 자원이 되며, 모든 사회활동의 기본이 되는 의사결정, 문제해결,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적시에 공급해 주는 도서관의 기능이 이 시대의 개인이나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창조와 수용 사이의 매개자로서, 창조활동의 지원과 국민적 문화향유를 위한 촉매자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속에서 행정담당 부서는 국가적 차원의 국가정보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하여 도서관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고, 예산지원 및 기금조성, 도서관협력체계의 확립과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위한 국내외 정보네트웍의 구축, 도서관 전문인력의 확보, 다큐멘테이션의 표준화, 도서관서비스의 확대, 전자도서관의 구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도서관 전문직단체의 對政府나 對사회적 활동이 지극히 소극적이었다는 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서관 및 사서를 대표하는 전문단체로

한국도서관협회가 있습니다. 도서관협회는 1945년에 설립되었고 名實 共히 우리나라 도서관과 사서의 전문직 직업단체로서의 기능과 학술단체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1970년에 한국도서관학회가 생겨났고, 1984년에는 한국정보관리학회가, 1985년에는 서지학회가 생겨났다는 사실은 한국도서관협회의 학술단체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 들어서서 전국사서협회가 發足하였다는 사실도 사서의 權益을 擁護하는 직업단체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아쉬운 일은 현재 도서관계에서는 많은 협회, 협의회, 학회들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공공도서관 협의회, 학교도서관부회, 전문도서관협의회,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의학도서관협의회, 신학도서관협의회, 사서협회 등 많은 전문단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서관학회, 정보관리학회, 서지학회 등의 학술단체나 언론 쪽의 조사기자협회 등도 이들 나름대로 활발한 학술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들 단체들은 모두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한가죽으로서 적어도 일년에 한번쯤은 오늘과 같은 전국도서관대회 때 모두 함께 모여 각 단체별 주요 프로그램을 대회의 통합 프로그램안에 포함시켜 명실공히 전국도서관대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통합 프로그램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도서관협회가 중심이 되어 대회를 주도해야 하며, 도서관협회가 주도할 수 있는 힘은 각 협회, 협의회, 협회의 단체장들이 한국도서관협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어 각 단체 사이의 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획적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서로의 신뢰와 결속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분산된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날 도서관이 전통적인 도서관 기능 외에 앞으로 도래할 전자도서관의 기능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도서관이 전자형태의 정보서비스 제공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도서관이 아닌 다른 정보산업체들이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상품화하여 다양한 전자배포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해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를들면 가정까지 침투될 비디오텍스트, 텔레텍스트, CABLE TV, 국내외 서지 데이터베이스, 전문 데이터베이스 등의 온라인 검색, CD ROM검색 등의 정보서비스가 다른 정보기관이나 정보산업체에 의해 확산된다면 도서관은 박물관이나 아카이브스(Archives), 리포지타리(Repositories)와 같이 문헌보존 기능이 추가되는 창고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창고의 이미지로 남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는 사서의 전문성과 역할이 도서관 벽안에서만 이루어 질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도서관 건물의 벽안에 가려져 있는 사서의 전문성을 도서관 밖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서들은 도서관 밖으로 나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잠재적 이용자와 미착된 관계를 맺음으로서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도서관 밖에서의 사서의 활동은 외국의 경우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대학교수의 개인적 연구를 지원해 주는 사서를

“information specialist” 또는 “떠돌아 다니는 교수(roving professor)”라 부르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환경에서는 “표류하는 사서(Floating librarian)”라고 지칭받는 사서들이 그 지역사회안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도서관자료의 필요성이나 이용법을 알지 못하는 계층의 일반인들을 직접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team librarianship” 개념의 등장입니다.

즉 지역의 정보봉사를 위해 사서가 그 지역의 community worker, social worker, teacher 등과 함께 팀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다른 예로 사서가 개인으로나 또는 회사를 설립하여 정보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가리켜 “information broker”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사서의 전문성이 도서관 건물밖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때 사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대적변혁에 따라 불가피하게 등장된 정보화사회의 특성을 생각해 보았고, 변화된 사회적 요구와 지금의 도서관문화와의 고나계에서 짚어볼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발제한 이들 문제들은 이 시간 이후 주제발표자들에 의해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 신 간 안 내 ■

● 한국신학관계석·박사학위논문목록집(1945-1989)/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편/국판/서울/293p./나눔사/3,800원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사무국
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 708-113
대한신학대학 본관 621호
전화번호 : 0343) 49-5271~3